

36정부 6·7

한국전쟁과 서울의 피해(상)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28

단장의 미아리고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폭풍이라는 암호를 신호로 기습공격을 감행하면서 일어난 한국전쟁 3년간. 그 것은 이 거래의 역사에서 과연 무엇이었던가.

나는 임진왜란시나 병자호란사를 읽으면서도 민족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지만 6·25 한국전쟁사를 대할 때마다 밀려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동족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저쪽은 2년에 걸친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다. 장병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월등하게 많았다. 장비에 있어서도 저쪽은 소련제 전차와 비행기를 갖추고 있었는데 저쪽은 대포뿐이었다. 대포도 성능이 악에 아무리 쏘아도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밀리고 또 밀렸다.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국경(38선) 전역에서 기습공격을 받았다. 적은 선차·중포·비행기를 가진 큰 병력인데 비해 저쪽은 전차·비행기가 한 대도 없다. 적의 전차를 향해 아무리 대포를 쏘이더라도 고력을 하지 않았다. 전선과의 연락은 두절되고 전반적인 전황은 파악할 수 없다. 전해져 오는 연락은 모두가 패전과 구원요구뿐이었다.”

“적군이 삼십팔도선에서 서울에 당도하는 데 겨우 3일 걸렸을 뿐이다.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에게는

이러한 피각의 실체가 일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전달된 것이다.”

개성에 이어 의정부가 함락되고 적군이 학동·우이동을 거쳐 미아리로 접근하고 있던 중에도 대한민국 중앙방송은 ‘적을 격퇴하고 있다.’, ‘싸움에 이기고 있으니 서울시민은 조금도 놓요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비서관 하나를 데리고 특별열차로 서울역을 떠난 것은 6월 27일 새벽 3시였다. 그날 새벽 4시에 국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전체 210명 국회의원 중 연락이 되어 모일 수 있었던 사람은 약 반수인 100여명이었다.

이 국회에 참석한 국방부장관 신성모, 참모총장 채병덕도 정확한 전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소란한 합성·육설이 오가는 가운데 ‘국회의원 전원은 100만 해국시민과 더불어 수도를 사수한다.’는 내용을 결의한다.

이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의장 신익희, 부의장 조봉암을 앞세운 몇몇 대표가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갔었다. 철번 앞서 주인이 떠나 버린 경무대는 한두 명의 경찰관이 빙诅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 보고를 들은 국회의원들은 소리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강 인도교와 3개의 철도교량이 파괴된 것은 6월 28일 오전 2시 15분이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한강이북 지역에는 약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남게 된다.

공보처 통계국이 1953년 7월 27

일 현재로 집계한 「6·25사변 종합 피해조사표」라는 통사판 책자가 나의 책꽂이에 찾히게 된 것은 하나의 기적이고 숙명이라고 생각된다. 이 자료는 현재 공보처의 후신인 문화체육부에도 없고 통계청도 남아 있지 않다고 알기 때문이다.

이 책자의 ‘민간인 인명 피해상황표’의 일부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남·여 별은 합산).

위의 숫자에서 최송하지만 부상자는 배기로 하자. 전투요원인 군인·경찰관이 아닌 순 민간인이 전국적으로 76만명 이상이므로, 서울에서만 9만 5천명 이상이 사망·학살·납치·행방불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살’을 보통의 사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집계한 점에서 이 전쟁의 잔혹성을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여러 구(區)의 구치(區役)를 만들면서 대한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피난자 명부를 되풀이 되풀이 보아야 했다. 그리고 그 숨한 이름 중에서 수천명을 해아리는 대학교수·의사·변호사·판사·검사·기업가·언론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름들을 통해 한국전쟁이 끼친 이 나라의 인재 손실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종로구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김구와 더불어 광복 전후 이 나라를 영토한 3대 기독 종교인 한 분이었던 김규식 박자를 비롯하여 제헌국회의원 이상의 정치인 17명, 서울대학교 총장(회장)



부산으로 피난한 정부요인들

(표 1) 민간인 인명 피해상황표

구 분	총 수	사망	학살	부상	납 치	행방불명
총 수	990,968	224,664	128,388	229,625	84,532	323,209
서울특별시	129,908	29,638	8,880	31,680	20,738	36,062

동·고리대학교 총장(院長)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교장 이상 교육자 11명, 신문사 편집국장·주필 이상의 언론인 6명, 이 나라를 대표하는 문필가 3명(춘원 이광수, 수필가 김진섭, 평론가 유태후), 현직 판사·검사 17명, 변호사 32명, 의사 11명, 양주삼동 저명한 목사 4명, 통일청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34명, 동화작 7명, 3·1운동 33인의 대표의 하나인 최린(崔麟)을 비롯하여 중추원 참의 이상의 친일파 7명.

전국의 변호사의 총수가 겨우 100명을 넘을까 알까 하는 시대에 32명의 변호사가 종로구에서만 납치되어



6·25로 파괴된 한강학교

갔다는 사실에 차가 떨리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망자 중에는 궁습 혹은 시가전 때 유란을 맞아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서울에서만 3만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집계되었으니 실로 놀라운 숫자이다.

그와는 별도로 문자 그대로 “학살”을 당한 자가 8,800명이나 집계되고 있다. 검사·경찰관·형부관, 군장교로 부대에서 낙오된 자, 우익 청년단장과 대원 그리고 동화장과 동화직원들도 학살되었다. ‘인민에 대한 적(敵)’이라는 죄명이었다.

공산군 점령초기에는 시내 이곳저곳에서 이른바 ‘인민재판’이 전개되었고, 이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예외 없이 “옳소”라는 강요된 구호와 박수에 의해 군중이 보는 앞에서 총살되었다.

행방불명자 중에는 인민위원회에 불어 그 심부름을 하다가 월북한 자도 있었고, 인민군(의용군)으로 강제 연행되어 간 자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사망자, 행방불명자보다도 피랍자

즉 강제로 납치되어 간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진다.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제하에서 특히 외과수술로 유명했던 백인제는 친우인 변호사 백봉제와 함께 납치되어 갔으며, 그 뒤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백인제는 후계자를 잘 두어 백병원과 인제대학으로 그 뜻과 재산이 이어지고 있다. 아우 붕제도 자식 하나를 잘 두어 백낙청이라는 이름은 제4공화국 시대의 저항지식인의 대표이자 잡지 《창작과 비평》의 발행인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학생들 중에는 그의 저항정신에 훌륭 나아지 그가 이 나라 최고의 영문학자인 사실도 모르고 있을 정도라고 들은 일이 있다.

성동구(현 중구) 신당동 피랍자 명부에서 그 이름이 발견된 방송모는 조선일보사라는 거대한 기구를 남겼기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194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있던 서광설은 같은 변호사로 있던 아들(제원)과 함께 납치되었다.

일제시대 최고의 병문학교였던 동경 제1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농업경제 학부를 졸업하자 바로 그 학교 조교를 맡아 수재로 널리 알려진 강정택의 이름은 동대문 피랍자 명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그의 나이 44세, 직업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였다. 서변 호사 부자나 강정택은 이복에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다. 피랍자 가족의 슬픔을 노래한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이 거래 최대의 비가(悲歌)로 길이 길이 남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자리는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니 끝데없는 감상은 제쳐 두고 한국전쟁 당시 서울의 물리적·공간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겠다.

또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던 3개월(6월 28일~9월 27일)의 기간 서울특별시 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겠지만 다음 기회 — 서울개발 이야기 — 로 미루기로 한다.

7월 16일의 용산폭격

대한민국 정부가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옮겨간 것은 전쟁이 일어난 이를 후인 6월 27일 오후의 일이다. 한강인도교와 철도교가 동시에 폭파된 것은 28일 오전 2시 15분이었다.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워 서울시내에 들어온 것은 28일 새벽이었고, 그때까지 서울시청이었던 건물은 ‘서울시 인민위원회’로 간판이 바뀌게 된다.

각 구청은 각 구 인민위원회가 되고, 각 동사무소에 노 00동 인민위원회라고 쓴 흰 종이가 붙었다.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의 서울시민은 150만을 약간 넘

었고, 그 중의 10분의 1, 즉 15만명은 한강 남쪽인 영등포구에 살고 있었다. 한강이북에 살고 있던 140만명 중에서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간 사람은 약 40만명이었다고 하며, 그 중의 80%는 광복 후 월남자들이었고 나머지의 20%, 약 8만명은 고급공무원·자본가·우익계 정치인, 그리고 군인·경찰관 가족이었다.

광복 후 월남자 수가 많았던 것은 그들이 공산정권의 실태를 이미 충분히 체험하였으므로 ‘도망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공산정권 90일간을 체험하게 된 약 100만명 정도의 서울시민 대다수는 ‘설마 생존이야 위험 받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민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인민위원회 통치에 들어간 서울은 낭장에 팔간색으로 변한다. 중심부와 번두리를 가릴 것 없이 거리의 모든 벽면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붉은 벽보가 차지했다. 인민해방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김책 장군 만세! 서울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승업 동부 환영 만세! 최용건 장군 환영 만세! 등등의 벽보였다.

시내 중심가에 들어가면 모임을 알리는 벽보도 눈에 띠었다. ‘민주조선 법률가 동맹 회합’, ‘민주조선 미술가 동맹모임’ 등등의 직능단체끼리의 모임. 그리고 ‘무참히 학살된 제주도민 유가족 모임’, ‘애국·민주 00군민 모임’ 등 지역별 모임의 벽보도 눈에 띠었다. 붉은 완장을 두른 청장년들은 불심검문을 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자에게는 의용군으로 지방하라고 권유하였다. 말이 권유이지 사실상 강제연행이었다.

삼삼오오 데를 지어 다니는 인민군 장교들, 특히 여자군인들의 능동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간혹 오산 등지에서 잡혀 온 미군포로들의 행렬, 그리고 신부·수녀들 특히 외국인 신부·수녀들이 잡혀와 데를 지어 끌려가는 광경을 본 일도 있다.

그러나 서울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수는 눈에 띠기